

안산 고려인 청년들, 봉사로 지역사회와 함께한다

- 재외동포청장, 안산 고려인 청소년·청년봉사단 발대식 참석 및
민생현장 방문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(국내체류동포지원강화)

-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.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2월 25일(수)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를 방문하고,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‘2026년 고려인 청소년·청년봉사단 제9기 발대식’에 참석했다.
 - 이날 행사에는 약 150명이 참석했으며, 봉사단 활동 소개와 임명장 수여, 우수 활동 단위 시상이 진행됐다.
 - 고려인 청소년·청년봉사단은 2017년부터 활동해 온 자치 모임이다.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아동·청소년과 청년들이 서로 돕고,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며 꿈을 키워가는 단체다. 동네 순찰을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청소년안전팀 및 한-러 통역팀, 역사해설팀, 학습멘토링팀, 미디어팀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하고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.
- 재외동포청장은 축사를 통해 “고려인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지키며 다시 일어난 역사”라며, “오늘 봉사단으로 함께 모인 여러분은 지역사회 속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값진 경험을 시작하는 것”이라고 격려했다.
 - 또 “재외동포청은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포용적 동포 정책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, 특히 청소년·청년이 언어와 환경의 장벽으로

인해 기회를 잃지 않도록 교육과 성장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”
고 밝혔다.

- 발대식 이후에는 고려인 청소년·청년들을 직접 만나 봉사활동 경험, 학업과 진로 고민, 지역사회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.
 - 특히 고려인 청소년·청년의 언어 적응, 학습 지원, 진로 설계 등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, 중앙정부와 지역 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.
- 이날 간담회에서 고려인 청년들은 공공 일자리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, 대학생 장학금 제도 개선 및 확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들을 건의했다.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“고려인동포 청년들이 제안한 다양한 사안들을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화답했다.
- 김 청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.
 -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는 안산 지역 노령층 고려인 동포들의 정착 상황과 생활 속 어려움,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.
- 재외동포청은 국내 귀환 동포에 대한 현장 중심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의 정착 지원과 차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.

붙임 : 고려인 청소년·청년봉사단 발대식 및 민생현장 방문 사진 4부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	책임자	팀 장	김동욱 (032-585-3280)
		담당자	주무관	김은혜 (032-585-3287)

